
 문화체육관광부		<h1>보 도 자 료</h1>			
보도일시	9. 4.(토) 오전 9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1. 9. 3.(금)	담당부서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과		
담당과장	김석일(044-203-2791)	담당자	사무관 정내훈(044-203-3165) 주무관 안혜진(044-203-3166)		

‘태권도, 우리 모두 챔피언!’ 태권도의 날 기념하다
- 9. 4. 제14회 태권도의 날 기념, 코로나로 침체된 태권도계에 희망 전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등과 함께 9월 4일(토), ‘태권도, 우리 모두 챔피언!’이라는 표어로 ‘제14회 태권도의 날’을 온라인으로 기념했다.

‘태권도의 날’은 2008년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 태권도가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1994년 9월 4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일을 기념하기 위해 법정 기념일로 지정한 날이다.

특히 최근 2020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보여준 태권도 선수들의 자신감 넘치는 경기 모습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이번 도쿄올림픽 시상대에 올랐던 21개국의 선수들의 모습은 태권도의 세계적인 위상을 한눈에 보여주었다.

문체부 황희 장관과 5개 태권도 기관·단체장들은 올해 태권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영상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태권도계와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태권도진흥 유공자 12명에게 문체부장관상을 시상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9월 4일 캘리포니아주 ‘태권도의 날’ 제정을 기념해 행사를 연다. 이에 문체부는 기념행사에서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을 선보이고 태권도의 날 제정에 기여한 데이브 민 의원, 샤론 퀴크 실바 의원, 최석호 의원과 박동우 보좌관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

 	<p>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 사무관 정내훈(☎ 044-203-3165), 주무관 안혜진(☎ 044-203-316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p>
---	--